

무지개빛으로 물드는 평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가 14일 준공을 앞두고 무지개빛 조명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16~18일 ISU 쇼트트랙 4차 월드컵대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박태환, 긴 터널 지나 빛 속으로

‘도핑 파문’ 딛고 나간 올림픽 400m 등 예선 탈락 ‘쓴맛’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3관왕 전성기 기록 쓰며 완벽 부활

박태환(27)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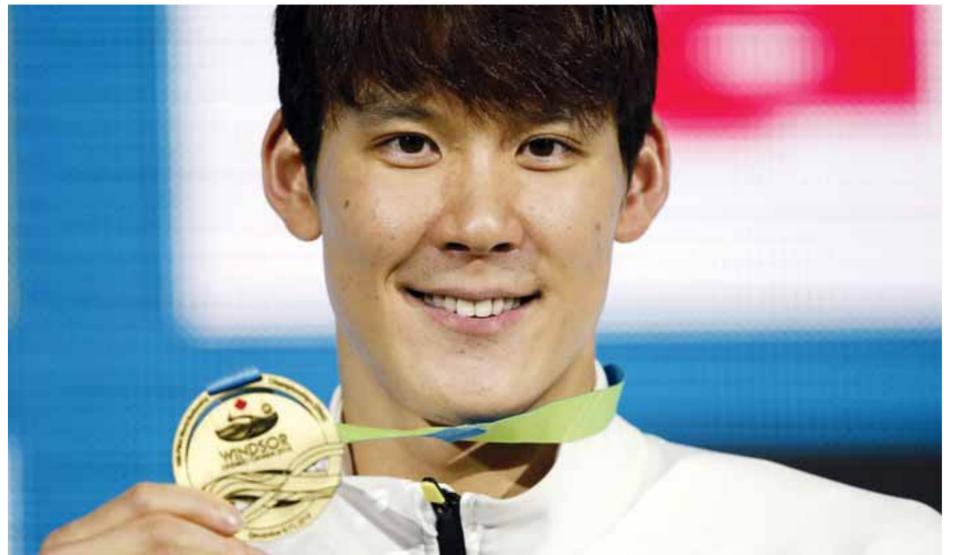
약물과도 같았던 2016년이지만 국내, 아시아를 거쳐 세계 무대에서 차례로 견제함을 확인하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1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4분 15초51의 아시아 및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34초59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자유형 200m에서는 1분41초03의 대회 및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서 역영을 펼친 뒤 여자 계영 200m 시상식이 끝나고 바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도 출전해 47초09로 7위를 차지하고 이번 대회를 끝냈다.

이번 대회는 박태환이 2016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도핑 파문’으로 수영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태환은 어렵게 출전한



박태환이 1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4분15초51의 아시아 및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이 금메달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에서는 쓴맛만 봤다. 훈련 부족으로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는 물론 100m에서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고 자유형 1500m는 아예 출전을 포기한 채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했다.

박태환은 리우에서 실패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부활의 발판을 놓아왔다. 지난 10월 전국체전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

고,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국제무대 경쟁력까지 재확인했다.

메달 색깔뿐만 아니라 박태환이 보여준 경기력도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해볼 만큼 빼어났다. 박태환의 이번 대회 기록은 2007년 FINA 경영월드컵 시리즈에서 작성했던 자신의 최고 기록을 모두 훌쩍 넘어섰다. 경기고 3학년때 재학 중이던 18세

때의 기록을 수영 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 27세에 갈아치웠다.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박태환은 미국을 거쳐 조만간 귀국한다. 지난 3월 이후 강행군을 이어온 박태환은 모처럼 쉬면서 내년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승엽, 현역 첫 일구대상

“한·일 통산 600홈런...성실·꾸준함 몸소 실천”

올해 한국·일본 프로야구 통산 600홈런을 달성한 ‘라이언 킹’ 이승엽(40·삼성 라이온즈)이 2016 휘슬러코리아 일구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엽은 12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구대상을 받았다. 현역으로 일구대상을 받은 선수는 이승엽이 처음이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이승엽이 프로야구 선수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승엽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구회는 “올해 승부조작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던 프로야구계에서 한일 프로야구 통산 600홈런을 치는 등 노력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엽은 내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있기에 현역으로서 받은 이번 상에 더욱 큰 의미를 뒀다.

그는 “현역 선수 최초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올해 성적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온 모습에 점수를 많이 주시길 감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17년을 현역 마지막 시즌으로 설정한 그는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저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다짐했다.

“은퇴 후 계획은 없다”는 이승엽은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 플레이하면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고 타자상은 ‘타격 3관왕’에 오른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 투수상은 2년 연속 15승 이상 거둔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이 차지했다. 신인상은 오랜 무명의 설움을 떨치고 넥센 히어로즈의 토종 에이스로 떠오른 신재영이 받았다.

의지노력상 수상자는 대성암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마운드에 복귀한 NC 다이노스 투수 원종현에게 돌아갔다. 손혁 전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6일구상 시상식. 대상을 받은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이 잔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넥센 투수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전일수 KBO 심판위원은 심판상 영예를 안았다.

일구회는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와 고(故) 박기철 스포츠투아이 부사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김현수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고 박 부사장은 한국 프로야구의 기록 분야를 개척·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연합뉴스

KIA 최형우 최다 득표 도전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

KIA 유니폼을 입은 ‘타격 3관왕’ 최형우가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에 도전한다.

2016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양재동 The-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KIA에서는 브렛 필(1루수), 이범호(3루수), 최형우·김주찬(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 등 5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는 ‘타격 3관왕’ 최형우다.

최형우는 올 시즌 195안타, 0.376 타율, 144타점으로 ‘타격 3관왕’을 차지했다.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는 최형우는 황금장갑까지 노리고 있다. 100억이라는 대박 계약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그가 시상대에 오르려면 역대 타이거즈 골든글러브 수상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사실 최형우의 수상 여부보다 최다득표 여부에 더 눈길이 간다. 뜨거운 외야 경쟁에서 최형우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최형우가 얼마나 많은 표를 챙기며 단상에 오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최다 득표수는 2007년 두산 소속으로 외야수 부문에서 이종욱(NC)이 기록한 350표다. 최고 득표율은 2002년 마해영(당시 삼성)이 지명타자 부문 유효표 272표 중 270표를 획득하며 기록한 99.26%다.

KIA에서는 김주찬도 수상권에 근접해 있다. 시상식장에서 이름이 불리며 17년차 김주찬은 처음 골든글러브를 품게 된다.

밀워키 유니폼을 입고 바리그에 복귀한 데임즈(전 NC)는 외국인 선수 최초 2회 수상, 2년 연속 수상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6 일구상 시상식. 최고 타자상을 받은 KIA 타이거즈 최형우(오른쪽)가 전년도 수상자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